



북한방송 주요논조

2013.4.1(월)
통 일 부
[정 세 분 석 국]

● 대남동향

- 【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대변인 담화(3.31)】 美국방성 ‘2012년 기지구조 보고서’의 駐韓美軍 무력증강 관련 ‘지역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군비경쟁과 전쟁위험성을 한층 증대시키는 것’이라며 ‘駐韓美軍 철수’ 주장(3.31,중통)
- 우리 정부당국의 對北발언(체제결속용, 의도적 연출, 체제불안설 등) 관련 ‘최고 존엄에까지 도전해 나셨다’며 ‘이미 선포한대로 한미에 대해 온 민족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’이라고 연일 위협(3.31,중통·노동신문·평방/보복 불세례를 피하기 위한 비열한 모략)
- 韓美 ‘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’ 관련 “전면전쟁도발문서”로 규정하며, ‘도발자들이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는 경우 침략자들과 관련 시설들, 군사기지들을 흔적도 없이 재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’이라고 지속 위협(3.31,중통·노동신문/상전과 주구의 침략적 공모의 산물)
- * ‘독수리합동군사연습·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·北인권설 등’ 거론 ‘새 정권도 반민족적인 대결의 전철을 밟고 있다’며 ‘역적패당이야말로 조국통일위업 실현의 암적 존재’라고 비난 및 위협(3.31,중통·노동신문/재앙의 화근을 제거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)

● 대내동향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3.31 당중앙위 정치국 및 중앙군사위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(3.31,중통·중방)
 - 김영남, 최영림, 최룡해, 장성택, 현영철, 김경희, 김격식, 김기남, 최태복, 박도춘, 양형섭, 김영춘, 리용무, 강석주, 현철해, 김원홍, 김정각, 리명수, 김양건, 김영일, 김평해, 곽범기, 문경덕, 로두철, 주규창, 김창섭, 리병삼, 조연준, 태종수 등 참가

- 北, 3.31 ‘黨중앙위 전원회의’를 통해 ‘주체혁명위업수행의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당의 과업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 제출할 간부문제 및 조직문제에 대한 의정들을 상정하고 ‘경제·핵무력 병진노선’ 채택(3.31, 중통·중방·평방)
 - 전원회의는 구체적 과업으로 △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의 생산력 증대,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역량집중을 통한 단기간내 인민생활 안정 △자립적 핵동력공업 발전 및 경수로개발사업 추진 △우주과학기술발전을 통한 통신위성 등 발전된 위성들 개발 발사 △지식경제로의 전환과 대외무역의 다각화·다양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△핵무력의 법적 고착과 세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의 질량적인 확대 강화 등 명시
-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, 3.31 금수산태양궁전 참배(3.31, 중통·중방)
 - * 대의원들, 3.31 대성산혁명열사능·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·통일거리운동센터 참관 (3.31, 중통·중방)
- ‘김일성, 창덕학교 입학’ 90돌 기념 보고회, 3.31 김진하(평양시당위 비서) 참가下 현지에서 진행(3.31, 중방)
 - * ‘김정일, 원화협동농장(평남 평원군) 명예농장원(83.3.31)’ 추대 30돌 기념보고회, 3.31 진행 (3.31, 중통)
- 北 부활절 특별기도모임, 3.31 평양장충성당에서 진행(3.31, 중통·평방)

● 대외동향

- 【중통 논평】 ‘조선반도에 조성된 핵전쟁발발의 엄중한 사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, 공갈책동으로 인해 산생된 것’이라고 왜곡하며 ‘정밀 핵타격수단들과 핵전쟁전법들을 다 가지고 있다’고 호언(3.31, 중통/우리의 실제적인 군사행동조치는 정당하다)
 - * ‘독수리합동군사연습’ 거론 ‘핵공갈과 위협이 시작된 이상 그에 대응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’이라며 ‘괌도 기지와 일본 오키나와 해군기지들도 정밀타격수단들의 타격권 안에 있다’고 위협(3.31, 중통·노동신문/도발자들은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한다)